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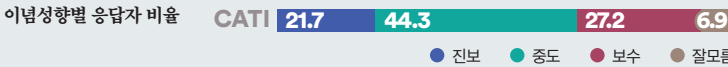
제105차 CATI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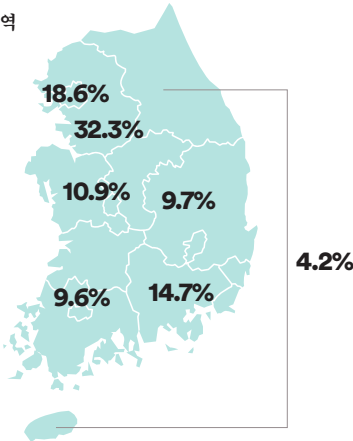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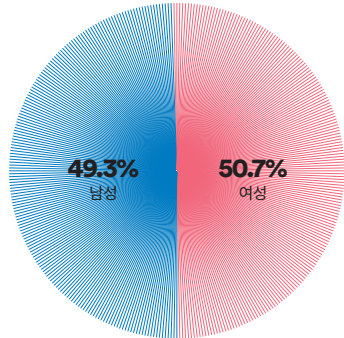
보고서

CATI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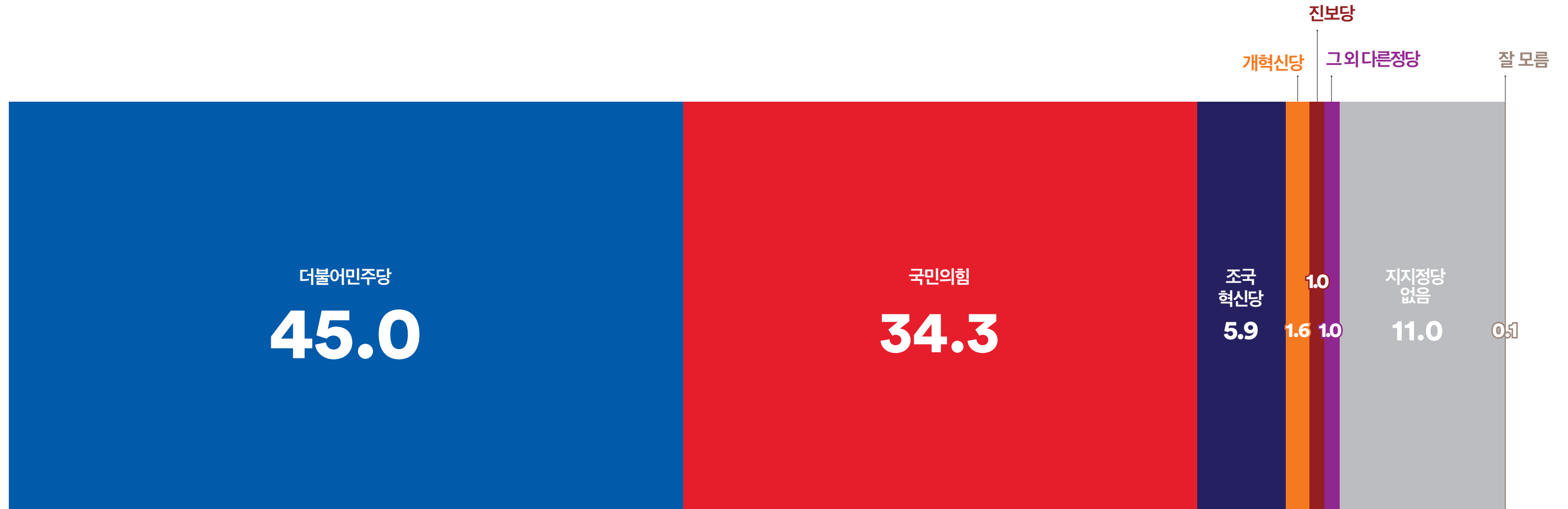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5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5	100.0	1005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495	49.3	498	49.6					1.00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8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8)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10	50.7	507	50.4					0.99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7	15.6	155	15.4					0.98
응답률	13.4% [총 통화시도 7,514명]			30대	152	15.1	150	14.9					0.98
조사기간	2025년 3월 7일 ~ 3월 8일(2일간)			40대	173	17.2	175	17.4					1.01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01	20.0	197	19.6					0.98
				60대	175	17.4	178	17.7					1.01
				70세 이상	147	14.6	150	14.9					1.02
			지역	서울	187	18.6	188	18.7					1.00
				인천·경기	325	32.3	325	32.3					1.00
		대전·세종·충청		110	10.9	109	10.8	0.99					
		광주·전라		96	9.6	97	9.7	1.01					
		대구·경북		97	9.7	98	9.8	1.01					
		부산·울산·경남		148	14.7	147	14.6	0.99					
		강원·제주		42	4.2	41	4.1	0.97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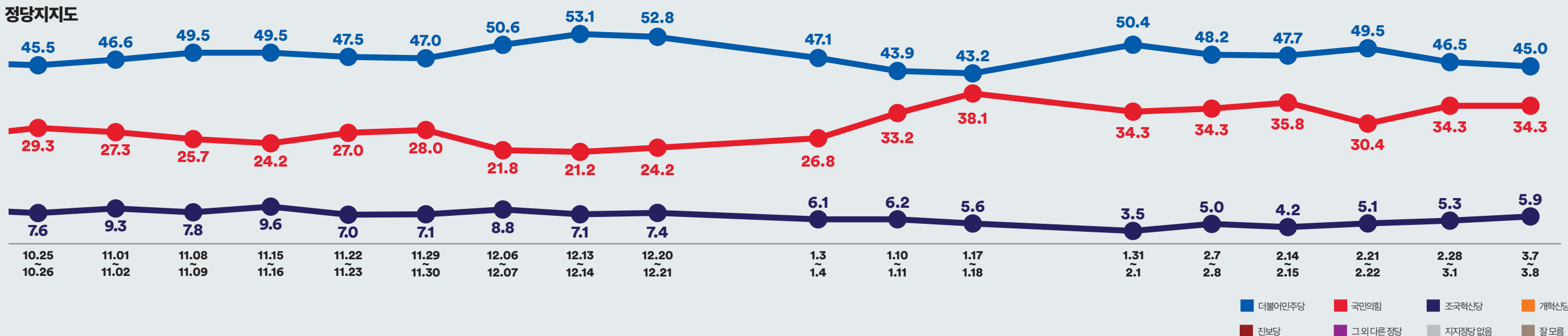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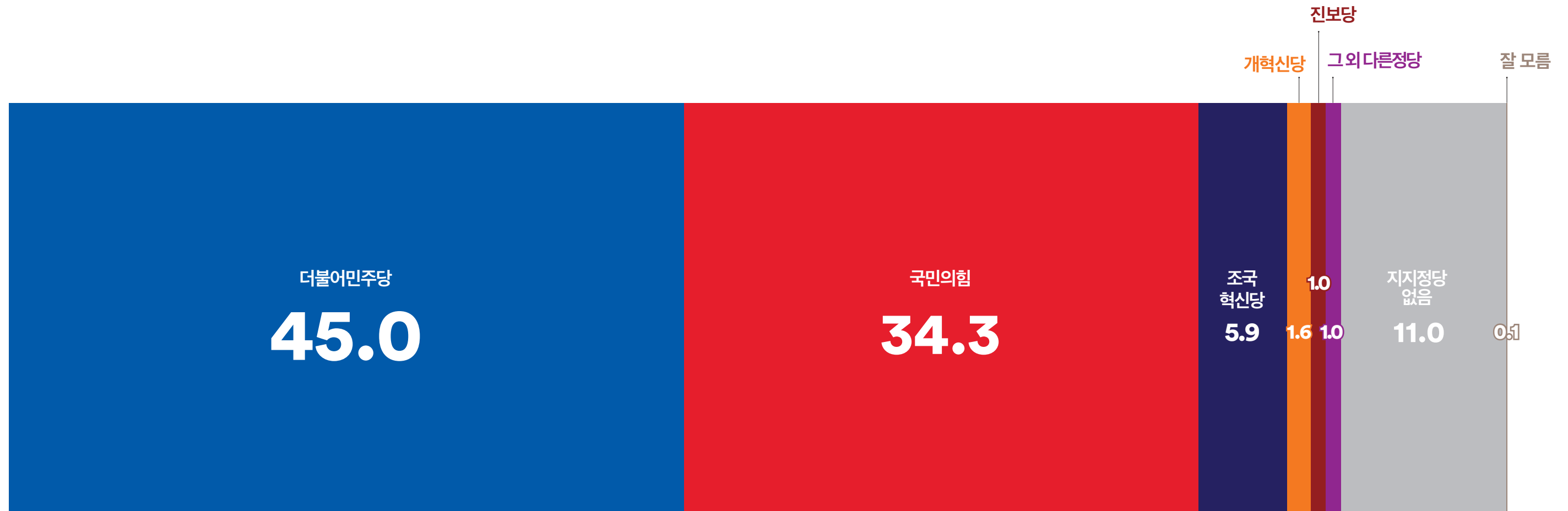


104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5%p 하락, '국민의힘' 변동 없음, '조국혁신당' 0.6%p 상승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10.7%p (지난 조사: 12.2%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간 격차는 16.6%p (지난 조사: 17.5%p)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모두 '국민의힘' 대비 우세

주차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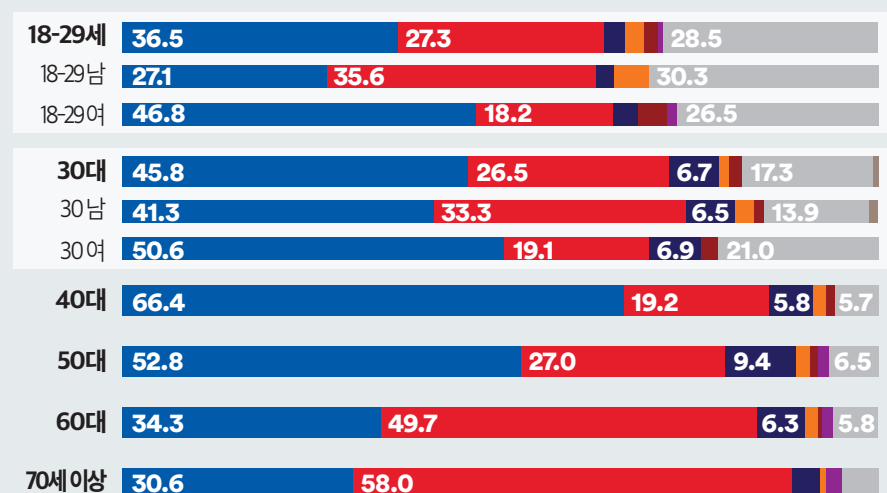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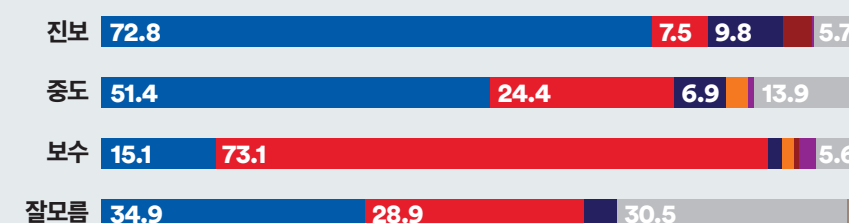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과 30~50대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은 TK·PK, 60대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1.4%, '국민의힘' 24.4%, '조국혁신당' 6.9%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27.0%p(지난 조사: 30.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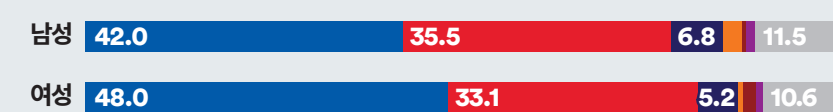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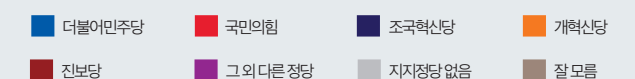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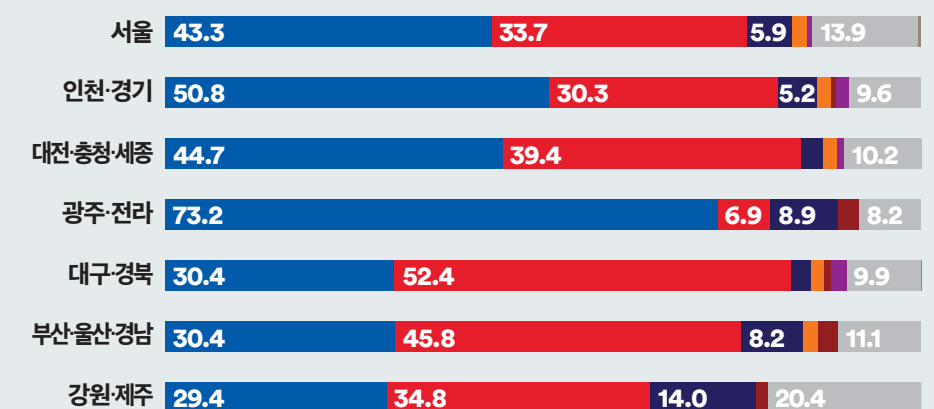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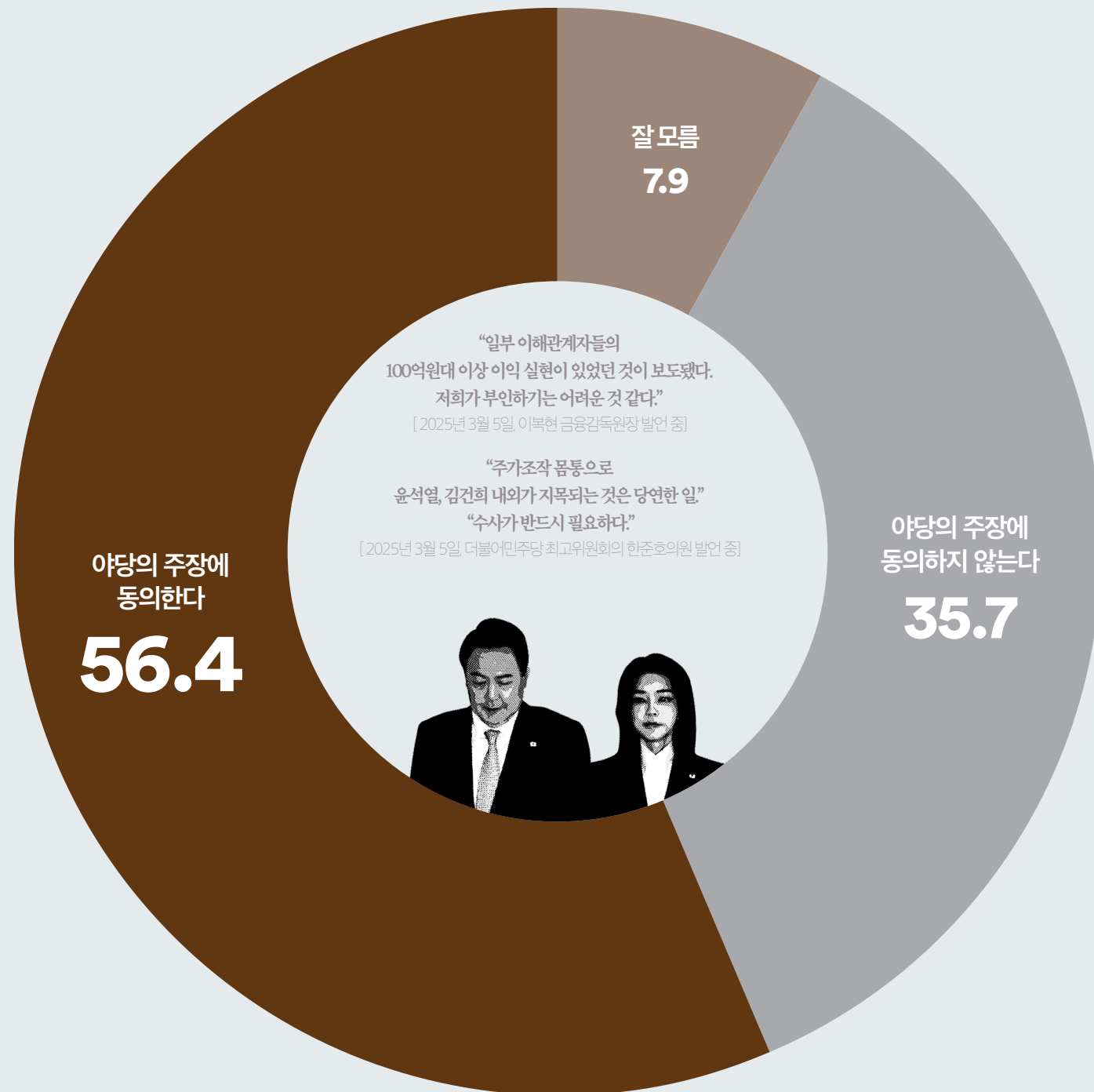


권역



Q.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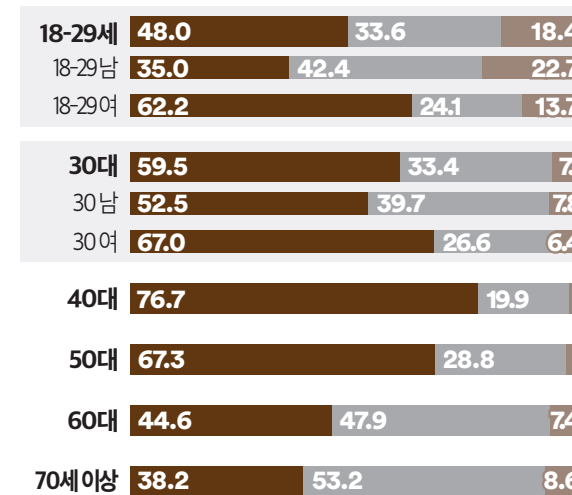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은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20.7%p)

TK·P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50대 이하 연령층, 중도층·진보층에서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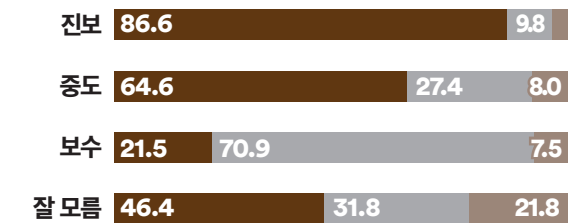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6.0%)과 보수층(70.9%)에서 우세를 보임

18-29세 남성층과 60대 이상 응답층, TK·PK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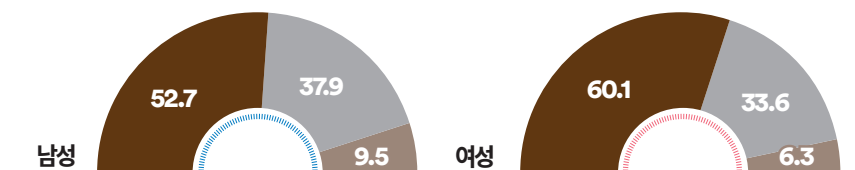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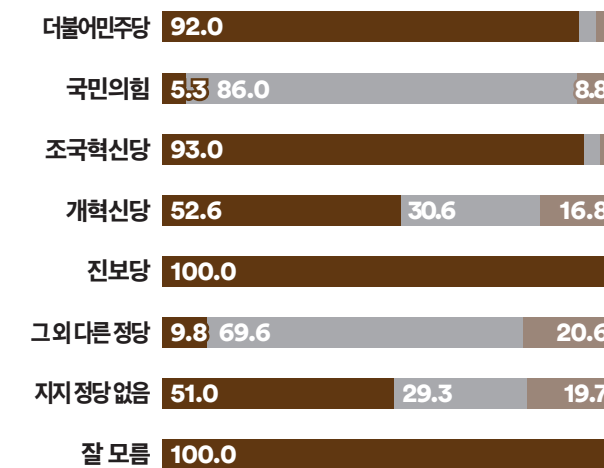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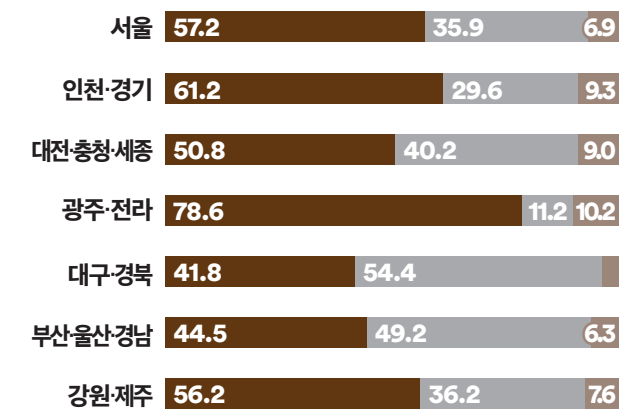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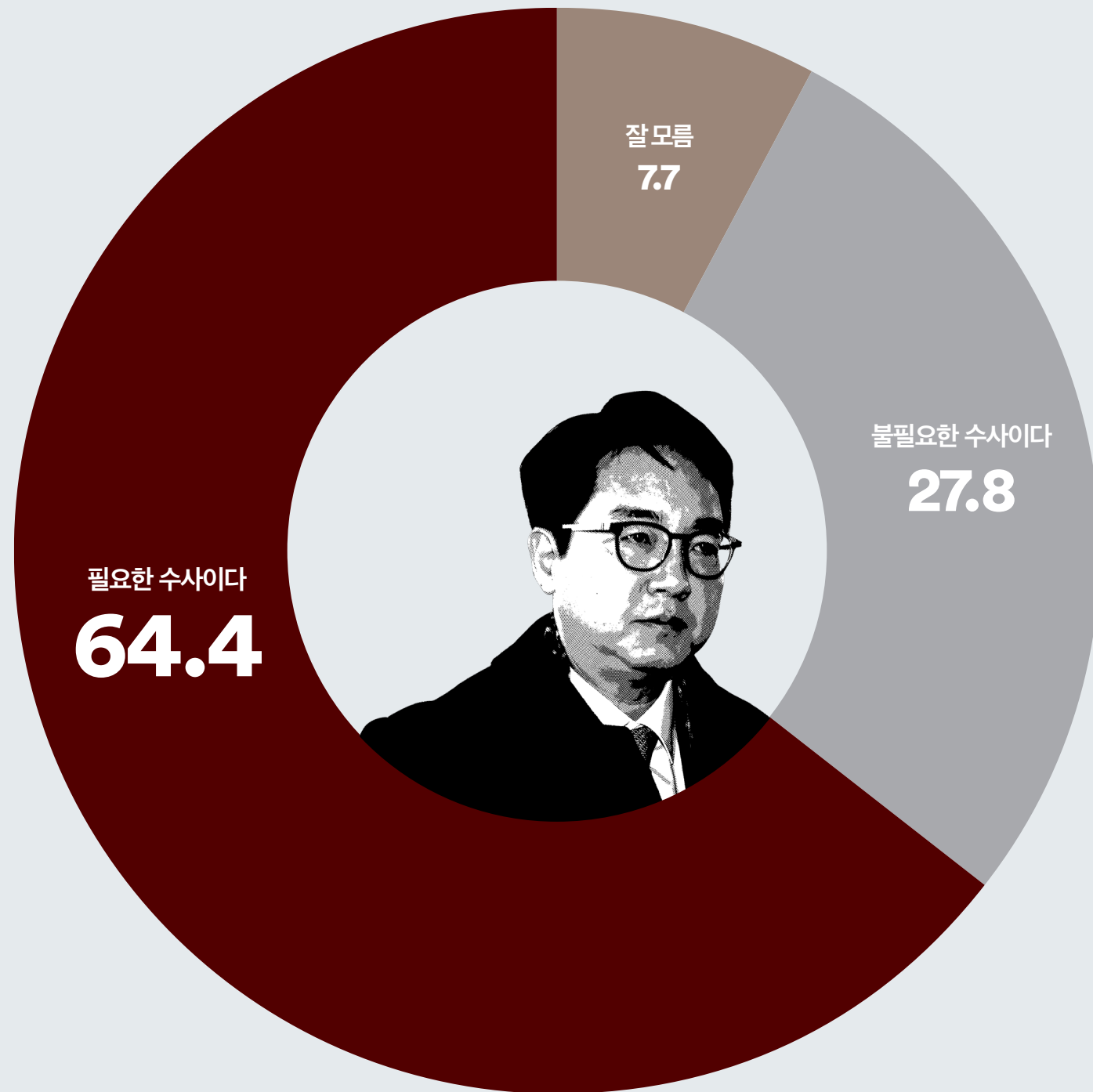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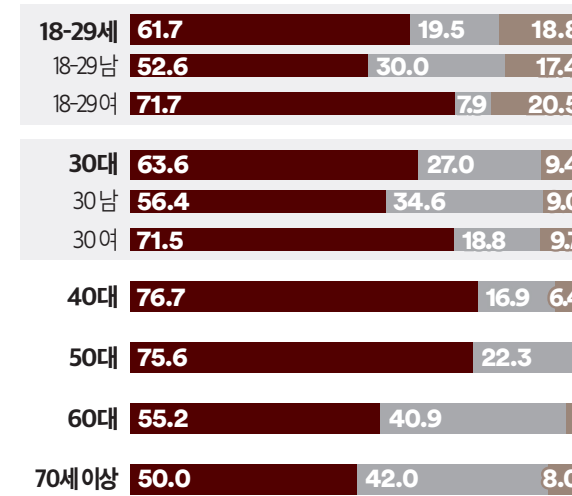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름

Q. 공수처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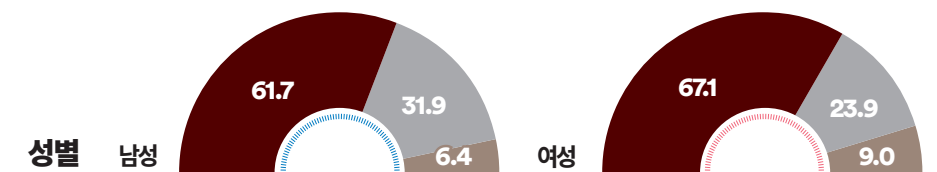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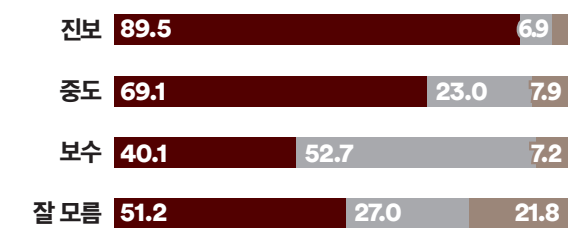


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응답자 3분의 2 정도는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36.6%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진보층·중도층 및 무당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3.8%)과 보수층(52.7%)에서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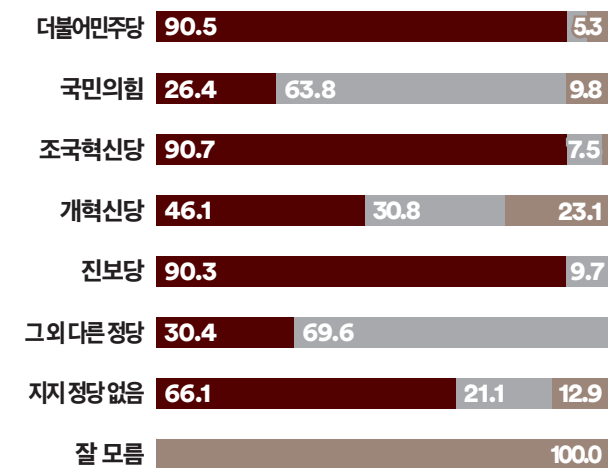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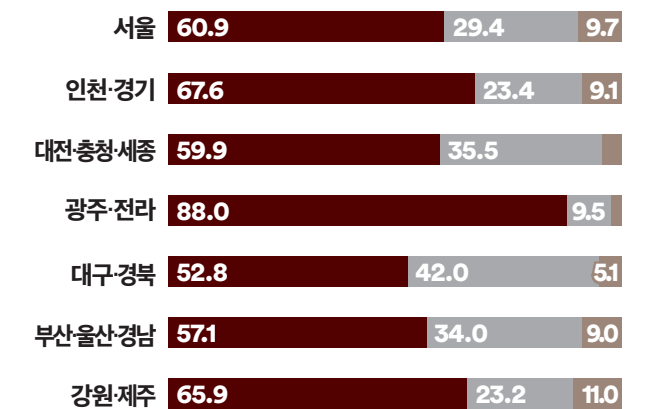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필요한 수사이다 불필요한 수사이다 잘 모름

검찰과 내란

Q.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계엄 당시 대검 부장급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후 선관위로 출발했다’는 제보내용을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적 통화였고, 선관위에는 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다

57.8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가 확인됐습니다”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국군방첩사령부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22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0시 53분쯤 방첩사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브리핑 내용 중]

검찰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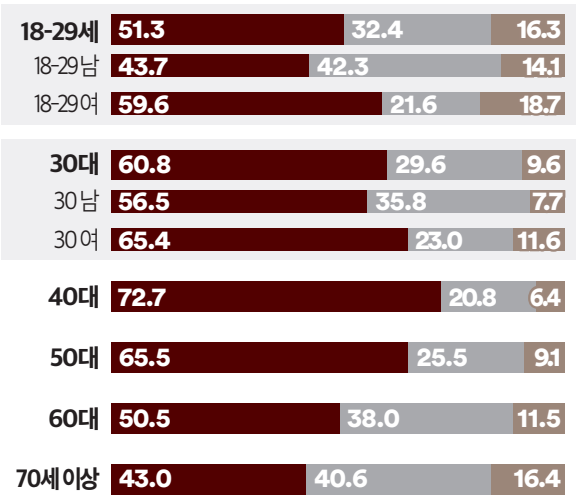
잘 모름
11.3

“A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먼저 전화를 한 것”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고,
상황이 종료돼 귀가한 후 다시 전화로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하였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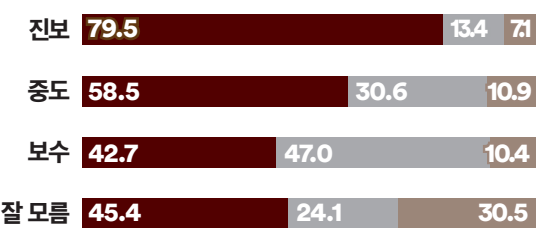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른 검찰 입장문 중]

10명 중 6명 정도가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27.0%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검찰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60.1%)에서 우세를 보임
보수층과 18-29세 남성층, 70세이상 응답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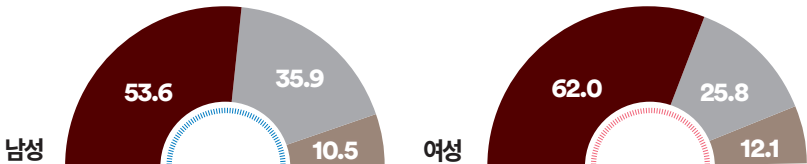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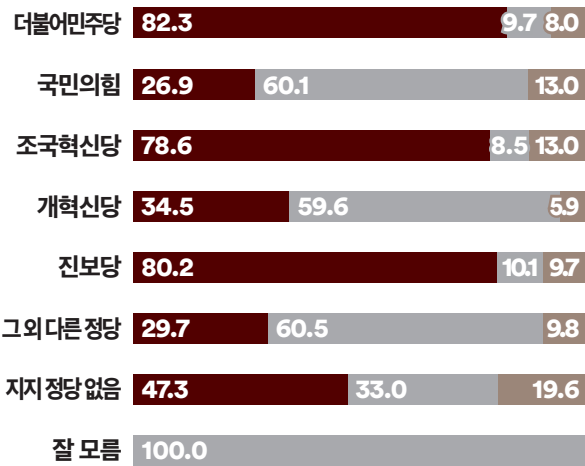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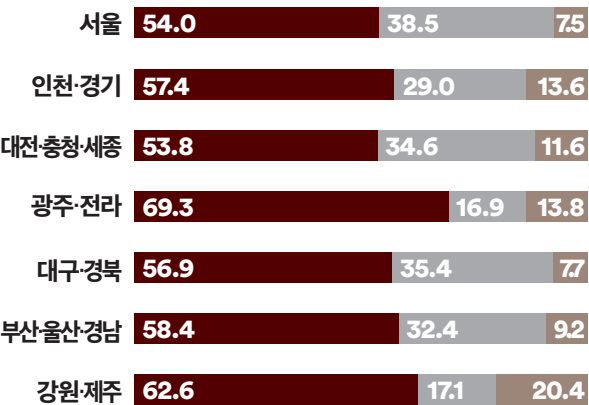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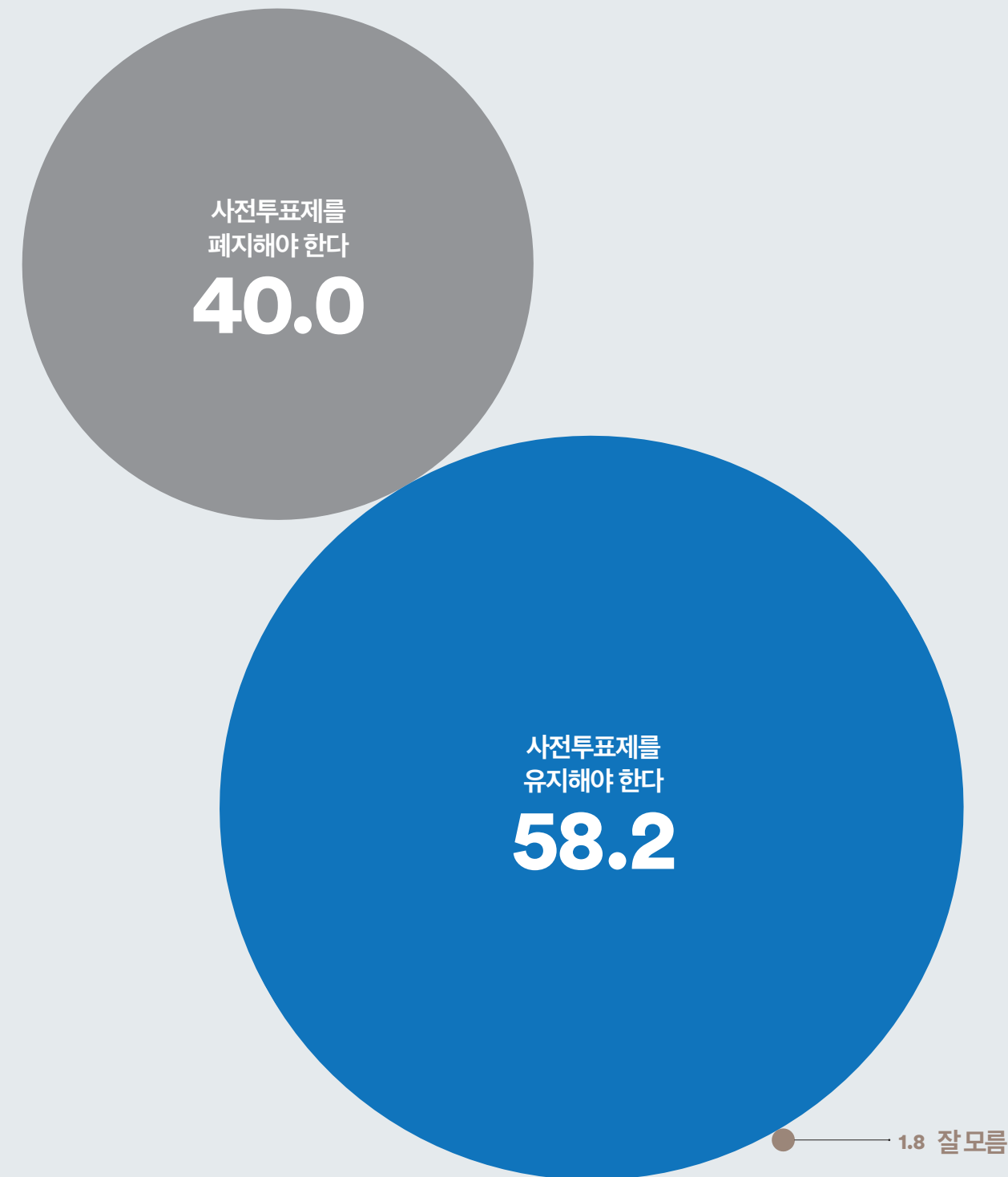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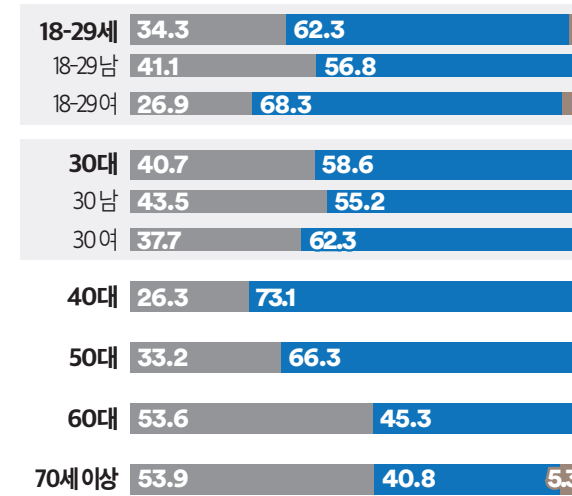
■ 관여했을 것이다 ■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 잘 모름

Q.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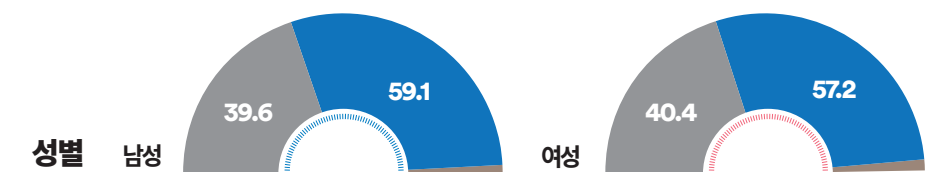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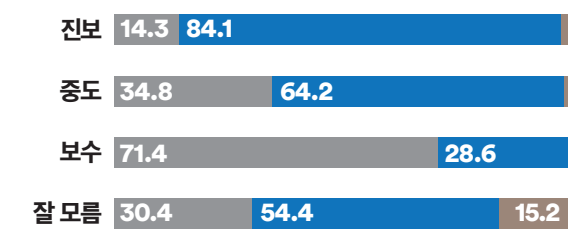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정도는 '사전투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18.2%p)
50대 이하 응답층과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사전투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60대 이상 응답층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진보층·중도층 및 무당층에서는 '사전투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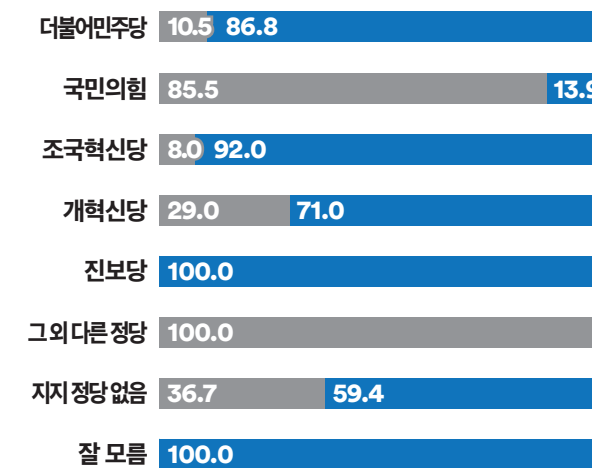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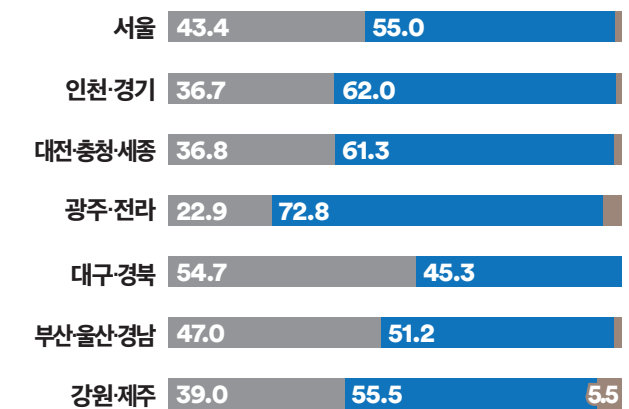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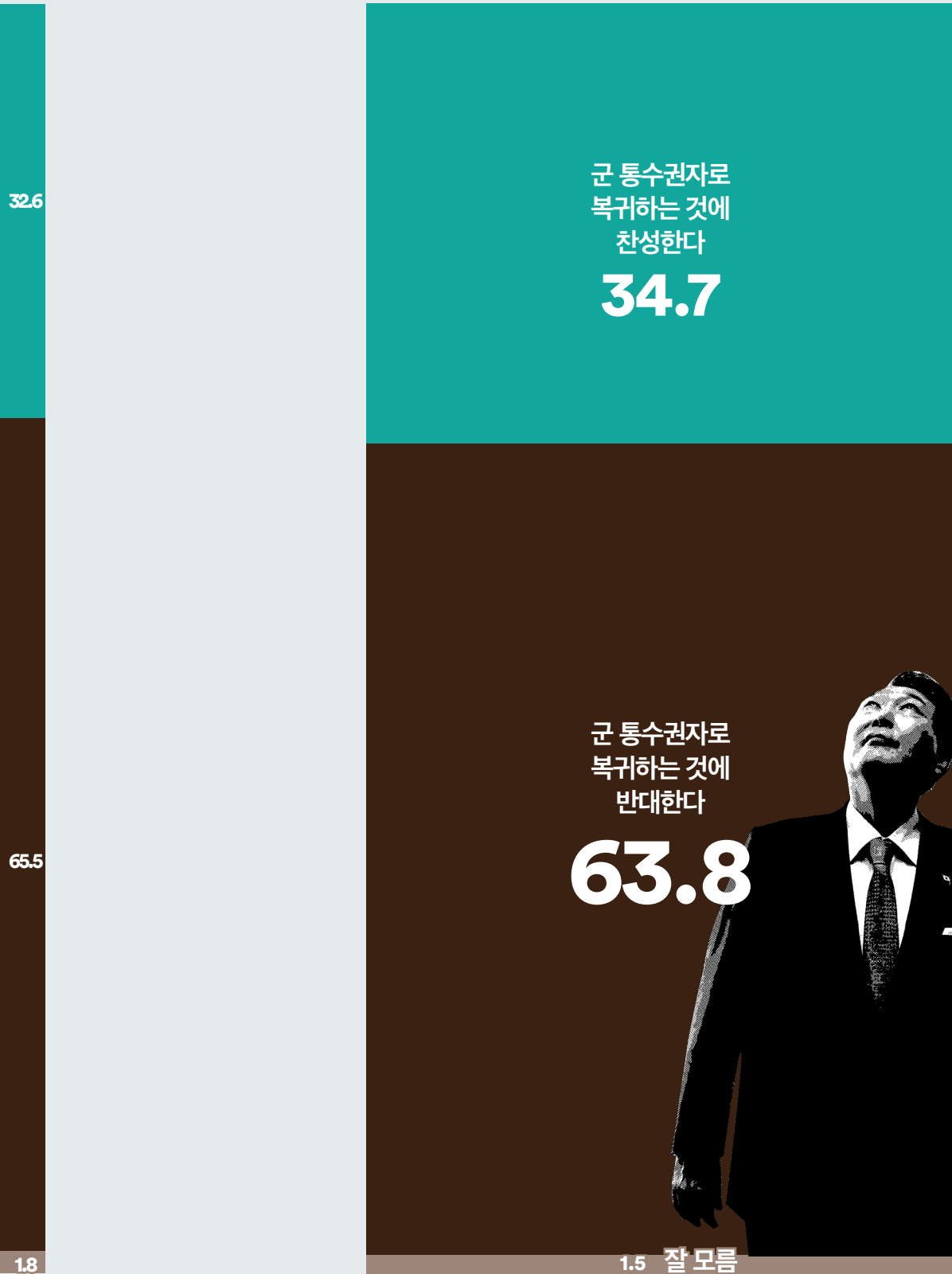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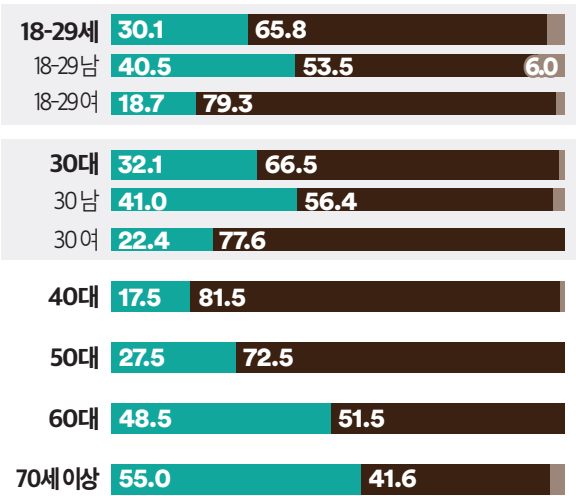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사전투표제를 유지해야 한다 잘 모름

Q.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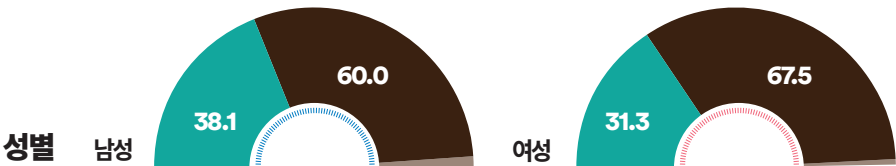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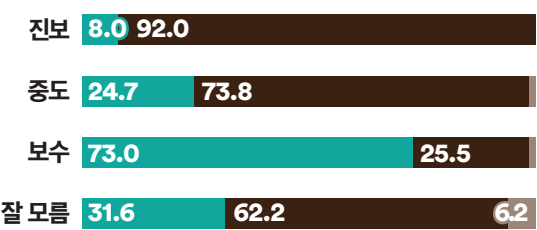


* 전제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는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29.1%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진보층(92.0%)과 중도층(73.8%), 무당층(73.8%)에서 압도적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89.4%), 보수층(73.0%)은 ‘군통수권자 복귀에 찬성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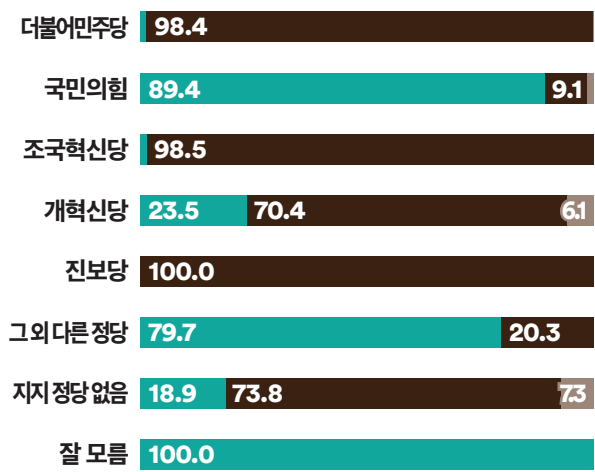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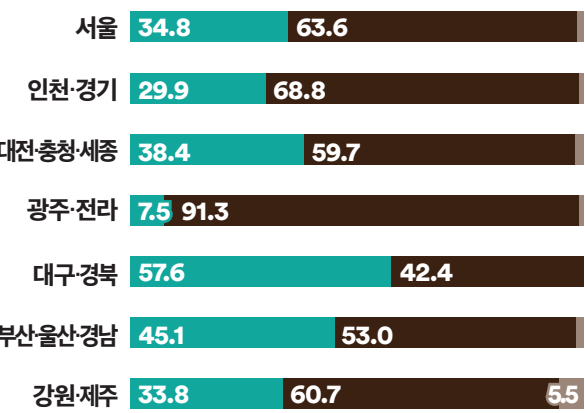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 104차 정례조사 결과(2025.2.28-3.1 진행)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03_02
